

訓民正音 親制論

李 基 文

1.

訓民正音의 創制에 관해서는 여러 觀點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왜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들에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그리하여 막상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는 깊이 있게 논의된 일이 없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正音 創制 당년의 기록들은 한결같이 “親制”를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뒤에 이와는 다른 非親制說이 나타나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사실이다.

이 非親制說은 成俔(1439~1504)의 「慵齋叢話」(卷7)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이 보인다.

[1] 世宗이 諺文廳을 設置하여 申叔舟, 成三問 등에게 命하여 諺文을 만들었다. 初終聲이 8字, 初聲이 8字, 中聲이 12字이다. 그 字體는 梵字에 의지하여 만들었다.…… 비록 배움이 없는 부녀자라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聖人이 물건을 만드는 知慧는 사람의 힘으로는 미칠 수 없는 것이다. (世宗設諺文廳 命申高靈成三問等製諺文 初終聲八字 初聲八字 中聲十二字 其字體依梵字爲之…… 雖無學婦人無不瞭然曉之 聖人創物之智 有非人力之所及也)

이 글에 梵字 起源說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점, 또 「訓民正音」(世宗 28年, 1446)과는 다른 分類가 제시된 점이 주목을 끌어 왔는데, 사실상 이 글은 非親制說을 처음으로 發說한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글의 敘述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첫 부분은 분명히 非親制를 말했지만 맨 끝부분은 世宗이 만들었음을 暗示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非親制說은 近代로 이어졌고 現代에 와서 通說로 굳어지게 되었다. 一例로 柳僖(1773~1837)가 「諺文志」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들 수 있다.

[2] 우리 世宗大王께서 詞臣에게 命하여 蒙古字의 모양을 본뜨고 黃瓚에게 질문케 하여 (諺文을) 만드셨다. (我 世宗大王 命詞臣 依蒙古字樣 質問黃瓚以製)

이것은 李瀾(1681~1763)이 「星湖僿說」(卷7)에서 한 말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李瀾은 元 世祖 때에 만들어진 八思巴 文字를 들어 말하였고 黃瓚에게 물어본 것도 이 文字에 관한 것이었으리라고 추측하였던 것이다.

20세기 초엽에 周時經은 正音 創制에 協贊者들이 있었음을 믿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그의 「대한 국어 문법」(1906)에 분명히 나타난다. (맞춤법은 고쳐서 인용한다.)

[3] 문 : 국문을 누가 만드셨느냐.

답 : 아조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나이다.

이것만 보면 분명히 親制說을 말하고 있으나, 이어서 다음과 같은 문답이 보인다.

[4] 문 : 세종대왕께서 국문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답 : 세종대왕께서 각국이 다 글자를 만들어 각각 그 나라말을 기록하되 우리 나라는 말을 기록하는 글이 없음을 근심하사 금중에 국문청을 설립하고 신숙주(申叔舟)와 성삼문(成三問) 등을 명하사 고전(古篆)과 별자(梵字)를 의방하여 국문을 친히 만드사 이름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시고 이십팔년 병인에 중외에 탄포하시니 무슨 말이든지 기록 못할 소리가 없고……

이 글은 諺文廳을 ‘국문청’이라 한 것과 “古篆”을 追加한 것을 제외하면 위에 인용한 成俔의 글을 되풀이한 느낌을 준다. 두 학자에게 명했다고 하고서 뒤에 “친히” 만드셨다고 한 것은 얼핏 矛盾인 듯하나 그 뒤의 문답을 보면 그 뜻이 드러난다.

[5] 문 : 그 때 국문 만드시는 일을 도운 이들이 누구냐.

답 : 영상 문충공 고령인 신숙주(申叔舟)와 승지 증문충공 창녕인 성삼문(成三問)과 영상 문정공 하동인 정인지(鄭麟趾) 등이니이다.

要約하면, 訓民正音은 世宗이 중심이 되고 몇몇 學者들이 協贊하여 創制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 周時經의 생각이 그뒤의 대부분의 國語學者에게 고스란히 계승된 것이다.

한마디로 非親制說이라 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구별해야 할 두 說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世宗이 學者들에게 命하여 만들게 하였다는 것(命制說)이요 또 하나는 世宗이 學者들의 協力을 얻어 만들었다는 것(協贊說)이다. 歷史적으로 보면, 命制說에서 協贊說로 흘러온 자취가 엿보인다. 오늘날 國語學者들의 거의 모든 著述에 이 協贊說이 채택되어 있음을 본다. (金敏洙 1964:36, 허응 1974:57, 심재기 1985:97 등) 周時經(1906) 이후에 많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協贊說이 學界의 主流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영향이 국민학교 교과서, 각종 辭典에 미치고 있다.

國內뿐 아니라 外國 學者들 사이에도 이 協贊說이 있음을 본다. 日本의 河野六郎(1989)에 다음과 같은 서술이 보인다.

[6] 이 한글에 대해서는 年代와 作者가 자못 분명히 알려져 있다. 이 文字는 李朝 第四代의 王 世宗이 親히 만든 것으로 되어 있다.…… 원체 世宗 임금은 李朝 第一의 名君으로 業績도 많고 教養도 풍부한 英才였지만, 政務 多忙한 國王이 새 文字를 그 理念에서 具體的인 完成까지 전부 혼자서 해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世宗 임금의 側近에는 集賢殿이라는 젊은 學者들을 여럿 모아놓은 機關이 있었고 그중에는 申叔舟 같은 秀才가 있어서, 아마도 임금을 도와서 새 文字의 創造에 관한 大事業에 참가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임금으로서 새 文字 創制의 일을 혼자 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은 한국 학자들의 著述에도 나타나는 것으로(一例로 심재기 1985:97) 아마도 이런 생각이 協贊說의 밑바닥에 깔려온 것이 아닌가 한다.

미국 학자의 최근 저술에도 非親制說이 보인다. 미국 학계에서 訓民正音의 獨創性이 인정된 것은 60年代에 들어서의 일이었다(Vos 1964, Ledyard 1966, McCawley 1966 등) 그뒤 言語學概論類의 文字에 관한 章에 한글이 등장하게 되었는데(Bolinger 1968, Fromkin and Rodman 1983 등) 그중 최근의 한 책(Burling 1992:404)에서 인용해 본다.

[7] In the fifteenth century, King Sejong of Korea appointed a committee to assist him in designing a new script that would be well suited to the country's language, and usable by ordinary people. The committee did its work brilliantly, and produced the script that is known today as Hangŭl. It is unique among the world's writing system, in combining aspects of featural, phonemic and syllabic representation.

2.

그러나 위에서 든 非親制說은 아무 根據도 없는 것이다.

訓民正音 創制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世宗 25年(1443) 末의 일이었다. 이 사실은 世宗實錄(卷102, 25년 12월 끝자리)에 기록되어 있고 「訓民正音」(世宗 28년, 1446)의 鄭麟趾 序文에서도 확인되므로 조금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訓民正音의 創制는 世宗 25年末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확실한데, 그 때에 世宗을 누가 도왔다거나 그의 命을 받아 이 일을 했음을 暗示하는 記錄은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集賢殿의 一部 學者가 訓民正音과 관련된 일에 참여했음을 말한 記錄으로는 世宗 26年(1444) 2월에 王命으로 시작된 「韻會」의 번역이 처음이었다(世宗實錄 卷103, 26年 2月 丙申). 그리고, 위에서 成俔이 諺文廳에서 새 글자를 만들었다고 했음을 보았는데 이것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방금 말한 「韻會」의 번역을 議事廳에서 하도록 했고 諺文廳이란 이름은 그 뒤에 나타나는 사실로 보아(世宗實錄 卷114, 28年 11月 壬申) 諺文廳은 아무리 일찍 잡아도 世宗 26年 2月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¹⁾

創制 當年の 文獻들은 한결같이 世宗의 “親制”를 말하였다. 우선 訓民正音에 관한 最初의 記錄(世宗實錄 卷102, 25年 12月 끝자리)이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8] 이 달에 임금께서 친히 諺文 28字를 만드셨다.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여기서, 혹시 그 시대에는 모든 업적을 임금에게 돌리는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世宗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 世宗實錄이 “親制”란 표현을 쓴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경우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親制”가 단순한 修辭的 表現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한편 鄭麟趾의 「訓民正音」 序文(世宗 28年 9月 上辭)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1) 이와 관련하여 保閑齋集(卷11 附錄)에 실려 있는 姜希孟의 (申叔舟) 行狀과 李坡의 碑銘은 世宗이 正音 28字를 創制하고나서 “禁中에 局을 設하여”(設局於禁中) 文臣들을 뽑아 일을 시켰음을 분명히 말하였다.

[9] 癸亥年 겨울에 우리 殿下께서 正音 28字를 創制하시고 간략하게 例義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하여 訓民正音이라 하셨다. ……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殿下께서는 하늘이 내신 聖人으로 制度施爲가 百王을 超越하시어 正音을 지으심도 祖述한 바 없이 自然에서 이루신 것이라 참으로 지극한 理致가 있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人爲의 사사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다. 대저 東方에 나라가 있음이 오래지 않음이 아니나 開物成務의 큰 智慧는 대개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음인저. (癸亥冬 我殿下 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恭惟我殿下 天縱之聖 制度施爲超越百王 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 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 而非人爲之私也)

이와 비슷한 말이 「訓民正音 解例」에도 보인다. 그 「制字解」는 正音 制字의 妙理를 설명하고나서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고 있다.

[10] 아아! 正音이 만들어짐에 天地萬物의 理致가 다 갖추어지게 되니 그 神妙함이여. 이는 거의 하늘이 聖人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그 손을 빈 것이고너. (吁 正音作而天地萬物之理咸備 其神矣哉 是殆天啓聖心而假手焉者乎)

심지어 訓民正音 創制를 반대한 崔萬理 一派의 上疏(世宗實錄 卷103, 26年 2月 庚子)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음을 덧붙여 둔다.

[11] 臣들이 엿드려 비옵건대 諺文 制作은 대단히 神妙하와 創物運智가 千古에 나오나……(臣等伏觀 諺文制作 至爲神妙 創物運智 復出千古)

비록 반대는 했지만 그들도 御製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음을 짐작케 하기도 남음이 있다.

실은 世宗 자신의 말이 우리들에게 그의 親制를 더욱 확신하게 한다. 우선 「訓民正音」의 御製序에서 “내 이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 새로 28字를 만드노니”(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라 한 것을 들 수 있다. 천히 만든 것이 아니라면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이 上疏文을 보고 崔萬理 등에게 한 世宗의 詰責에 나타난다.

[12] 또 吏讀를 만든 본 뜻이 곧 便民을 위한 것이 아니냐. 便民으로 말하면 지금의 諺文도 또한 便民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대들이 薛聰만 옳게 여기고 그대들의 君上이 한 일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且吏讀制作之本意 無乃爲其便民乎 如其便民也 則今之諺文 亦不爲便民乎 汝等以薛聰爲是 而非其君上之事 何哉)

[13] 또 그대들이 韻書를 아느냐. 四聲과 七音을 알며 字母는 몇이나 있는지 아

느냐. 만일에 내가 韻書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누가 바로잡을 것이냐. (且汝知韻書乎 四聲七音 字母有幾乎 若非予正其韻書 則伊誰正之乎)

[14] 또 上疏에 이르기 “신기한 한 재주”라 했으니 내가 늙마에 消日하기가 어려워져 책을 벗삼고 있을 뿐이지 어찌 옛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해서 했던 말이나. (且疏云 新奇一藝 予老來難以消日 以書籍爲友耳 豈厭舊好新而爲之)

[15] 또 내가 늙어서 國家의 庶務는世子가 도맡아 하는 터에, 작은 일이라든가 마땅히世子가 참여하여 결정하거나 하물며 諺文이겠느냐. (且予年老 國家庶務 世子專掌 雖細事 固當參決 況諺之乎)

이 말들은 世宗이 正音을 친히 창제했음과 世宗이 正音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무엇보다도 생생한 증거라 하겠다. [12]는 便民이 正音創制의 본뜻임을 보여준 것으로 「訓民正音」의 御製序의 精神과 일치하는 것이요 [13]은 「韻會」번역을 논란한 데 대하여 그들의 無知를 면박한 것인데, 世宗의 강한 使命感을 엿보게 한다. [14]는 “신기한 한 재주”라고 한 데 대하여 正音創制가 예로부터의 學問을 꿰뚫은 데서 나온 것임을 暗示한 것으로 正音創制의 基本을 밝힌 중요한 發言이다. 그리고 [15]는 正音을 매우 중요시한 世宗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正音創制는, 世宗 25년末에 발표되기 전에는, 밖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世宗이 혼자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秘密이 지켜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正音創制는 극도의 隱密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짐작된다. 만일 世宗 25년 이전에 集賢殿의 一部 學者가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었다면, 그 사실은 곧 集賢殿 안에 알려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集賢殿 안에서 一部 學者가 王命으로 正音과 관련을 맺자마자 다른 學者들이 上疏를 올린 사실로 미루어 볼 일이다. 이 上疏文이 正音創制를 둘러싼 隱密主義를 공격하고 있음은 흥미깊다.

[16] 만약 諺文을 부득이 創制하셔야 될 일이라 해도 이는 風俗을 바꾸는 큰 일이라, 마땅히 宰相으로부터 百僚에 이르기까지 相議하여야 하고 國人이 모두 옳다고 해도 오히려 미리 생각하고 다시 거듭 생각하여 歷代 帝王에게 質問하여도 어그러지지 않고 中國과 상고하여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고 百世에 聖人을 기다리어 써 의혹될 바가 없는 연후에야 可히 행하실 일이옵니다. (儻曰 諺文不得已而爲之 此變易風俗之大者 當謀及宰相下至百僚 國人皆曰可 猶先甲先庚更加三思 質諸帝王而不悖 考諸中國而無愧 百世以俟聖人而不惑 然後乃可行也)

그러나 世宗으로서도 완전한 은밀주의를 지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正音 創制作業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 길이 없으나 예삿일도 아니고 이와 같은 民族史上 破天荒의 大事業을 끝까지 완전한 孤獨 속에서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누군가에게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王世子를 비롯한 아들들이 때로 그의 말벗이 되었을 가능성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

正音 創制가 公開된 뒤에 「韻會」 번역이 맨 첫 事業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일을 東宮(나중의 文宗)과 首陽大君(나중의 世祖)와 安平大君에게 監掌트록한 사실이 우리의 주의를 끈다(世宗實錄 卷103, 26年 2月 丙申). 아마도 그 때에 王子들이 正音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에게 책임을 맡겼던 것이 아닌가 한다. 崔萬理 등이 上疏에서 이 처사를 비난한 데 대하여 世宗이 [15]와 같이 諺文에 관한 일에 世子가 참여함은 당연하다고 한 대목도 우리의 주목을 끌어 마지 않는다. 실제로 文宗에 대해서는 「洪武正韻譯訓」(端宗 3年, 1455)과⁽²⁾ 「直解童子習」⁽³⁾에 申叔舟와 成三問이 각각 쓴 序文에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있다.

[17] 文宗恭順大王께서는 東宮에 계실 때부터 聖人으로서 聖人을 輔弼하여 聲韻을 參定하시었으며(文宗恭順大王 自在東邸 以聖輔聖 參定聲韻)

[18] 우리 世宗과 文宗께서 이를 딱하게 여기시어 이미 訓民正音을 만드시니 天下의 모든 소리가 비로소 다 記錄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되었다. (我世宗文宗 慨然念於此 既作訓民正音 天下之聲 始無不可書矣)

이 두 글의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文宗이 正音 創制와 無關하지 않았고 특히 聲韻에 관심이 컸음을 알 수 있다. 正音 創制 이후에 이에 관한 事業에 가장 많이 참여한 두 사람의 證言이니, 믿어도 좋지 않은가 한다.

3.

訓民正音은 예사로운 文字가 아니다.

(2) 이 책은 高麗大學校 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으나 卷1·2가 落佚이다. 이 序文은 保閑齋集에 실려 있다.

(3) 이 책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그 완성 年代도 未詳이다. 이 序文은 「東文選」과 「成謹甫先生集」에 실려 있다.

世界 文字史의 큰 흐름은 이웃에서 쓰는 文字를 받아들여서 조금 고쳐서 쓰는 것이었다. 따라서 文字史에서 ‘發明’(invention)이란 말을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 학자도 있다(DeFrancis 1989:215). 그러나 訓民正音은 이 흐름을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 만든 문자로서 정히 世界 文字史上的 ‘發明’에 해당한다.

訓民正音은 깊은 學問 研究의 기초 위에서 만들어진 文字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論文의 범위 밖이므로 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특히 音韻 研究가 訓民正音 創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訓民正音 體系가 보여주는 音韻 理論은 中國에서 들어와 우리 나라에서 獨自적으로 발전된 것이었다. 특히 音節의 二分法을 三分法으로 고치고, 그 결과 나타난 中聲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體系를 세운 것이 이 音韻 理論의 특징이었다. 訓民正音 創制者는 바로 이 理論을 발전시킨 大學者였던 것이다.

과연 世宗이 바로 이 學者였을까. 그렇다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 筆者는 세 方面에서 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첫째는 當時人의 證言이다. 世宗은 어려서부터 學問을 좋아하였고 經學과 史學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明 나라에서 「四書大全」, 「五經大全」, 「性理大全」이 우리 나라에 들어왔을 때(世宗 元年, 1419) 世宗은 이 책들을 스스로 읽었을 뿐 아니라 「性理大全」은 우리 나라에서 간행하게 하기도 하였다.⁽⁴⁾ 여기서는 音韻學과 직접 관련이 있는 申叔舟의 證言(「洪武正韻譯訓」序)을 들어 보기로 한다.

[19] 우리 世宗莊憲大王께서는 韻學에 마음을 두시고 깊이 연구하시어 訓民正音 若干字를 創制하시니 (我世宗莊憲大王 留心韻學 窮研底蘊 創制訓民正音 若干字)

여기서 ‘韻學’이라고 분명히 박아서 말한 이 證言은 큰 중요성을 지닌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둘째, 그의 學問, 특히 音韻學 研究의 깊은 造詣를 엿보게 하는 世宗 자신의 말이 더욱 큰 주목을 끈다. 崔萬理 등의 上疏에 대한 그의 詰責에서

(4) 世宗의 學問 一般에 대해서는 李崇寧 1981 참고. 性理大全과 訓民正音의 연 관성에 대해서는 姜信沆 1963 참고.

音韻學에 대한 그들의 無知를 나무라고 “내가 韻書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누가 바로잡을 것이냐”고 강한 自信感과 使命感을 보인 것이다(引用 [13]). 아무리 신하들이라 해도 자신의 音韻學 研究가 여간 도저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위의 두 증거들이 소극적인 데 대해서 世宗의 學問의 片貌를 밝혀 주는 적극적인 증거가 있다. 訓民正音에 관한 당시의 모든 기록이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중에 世宗의 個人的 學問 世界를 엿보게 하는 이런 증거가 남은 것은 참으로 天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訓民正音 解例」의 「終聲解」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說明이 보인다.

[20] 그러므로 ‘ㄱ ㄴ ㄹ ㅍ ㅊ ㅌ’의 여섯 字는 平上去聲의 終聲이 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 入聲의 終聲이 되나 ‘ㄱ ㄴ ㄹ ㅍ ㅊ ㅌ’의 여덟 字만으로 쓰기에 足하다. 예컨대 梨花가 ‘빛꽃’이 되고 狐皮가 ‘엿의 잣’이 되지만 ‘ㅌ’字로 通用할 수 있는 까닭에 오직 ‘ㅌ’字로 쓰는 것과 같다. (所以 ㄱ ㄴ ㄹ ㅍ ㅊ ㅌ 六字 爲平上去聲之終而餘皆爲入聲之終也 然 ㄱ ㄴ ㄹ ㅍ ㅊ ㅌ 八字可足用也 如 빛꽃爲梨花 엿의 잣爲狐皮 而 ㅌ 字可以通用 故只用 ㅌ 字)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맞춤법이 제시되어 있다. 하나는 終聲에 ‘ㅌㅌ’ 등을 쓰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ㅌ’만을 쓰는 것인데 이들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서로 다른 原理에 입각한 것이다.

[21] 빛꽃, 엿의 잣

[22] 빛꽃, 엿의 잣

이 두 맞춤법 중에서 「解例」는 [22]쪽을 택하였음을 [20]은 보여준다. 실제로 「解例」는 [22]의 맞춤법을 보여준다. 「用字例」에서 終聲의 例로 든 것이 ‘ㄱ ㄴ ㄹ ㅍ ㅊ ㅌ’의 8字뿐이다. 이 맞춤법이 그뒤 모든 諺解에 사용된 것이다. (5)

아무 說明이 없지만, 「解例」가 편찬되던 때에 [21]과 같이 쓰자는 주장과 [22]와 같이 쓰자는 주장이 對立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마도 이들 중의 어느 쪽을 택하느냐를 놓고 상당한 논의가 전개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解例」에서 이렇게 대립되는 두 原理를 제시하고 그중의 하나를 택한

(5) 유일한 例外가 ‘ㅌ’이었다. 바로 「解例」가 例로 든 ‘여수’의 屬格形도 ‘엿의, 엿이’가 일반적이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李基文 1972 참고.

예는 달리 찾아볼 수 없으니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매우 심각했음을 추측케 한다. [21]과 [22]가 각각 누구의 주장이었는지, 그 理論的 根據는 각각 어떤 것이었는지, 이 논의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음이 아쉽게 느껴진다. 다만 「解例」의 설명에서 [21]은 原則的인 것이요 [22]는 實用的인 便法으로 생각한 듯한 印象을 얻음이 고작이다.

여기서 「龍飛御天歌」의 맞춤법이 [21]과 같은 예들을 보여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용비어천가」에는 ‘△지갸표’ 등의 終聲 表記例가 보인다. (數字는 章次)

- [23] 꽃 華(2)
- 깊- 深(34)
- 叉 邊(68, 125)
- 높- 高(34)
- 널 葉(84)
- 빛나- 光(80)
- 알 弟(24, 103)
- 웅흐- 晒(16)
- 쫓- 逐(36, 55, 78)
- 첫 初(12)

이러한 「용비어천가」의 맞춤법은 「解例」가 채택한 것과는 다른 것인데, 이것이 「月印千江之曲」에도 나타난다. 「용비어천가」에는 없는 ‘ㅌ’의 예가 추가된다. 「월인천강지곡」은 「月印釋譜」에 合編되어 전하는 것과 「釋譜詳節」(國立圖書館本) 속에 끼어 있는 落張과 1961년에 세상에 알려진 上卷(陳棋洪所藏, 通文館 影印)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마지막 책의 예들을 들기로 한다.

- [24] 꽃 花(7, 42, 81, 135, 136, 158, 159, 160)
- 叉 邊(26, 92, 124)
- 낫 晝(16)
- 날 個(40, 62, 91, 92)
- 높- 高(99)
- 놋 面(49)
- 맞나- 會(178)
- 뿔 鼓(40)
- 빙- 扮(121)
- 빙이- 使扮(49, 65, 117, 120)

벗아디- 被碎(158)

앞 前(70)

웃- 笑(167, 179)

층 貌(129, 188)

첫 初(114)

「解例」에 이어서 간행된 世宗代의 문헌들이 이처럼 「解例」의 맞춤법 規定을 따르지 않았음은 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어떻게 감히 「解例」의 權威를 無視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여기서 世宗代에 간행된 또 하나의 문헌인 「석보상절」(世宗 29, 1447)의 맞춤법에 주목하게 된다. 이 책은 「解例」의 맞춤법 規定을 전폭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首陽大君(나중의 世祖)이 지은 「석보상절」을 보고 世宗이 「月印千江之曲」을 지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⁶⁾ 「용비어천가」는 世宗 24년(1442)에 그 준비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世宗 29년(1447)에 간행되기까지 시종 世宗의 命으로 그의 각별한 관심 속에 이루어진 책이다. 이렇게 볼 때, 世宗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믿어지는 책들이 「解例」의 맞춤법 規定을 따르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혹시나 [21]과 같이 쓰자는 것이 世宗의 個人的인 주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데 생각이 미치게 된다. 특히 「석보상절」과의 對照가 이런 추측을 하게 한다.

그런데, 바로 이 추측이 옳음을 증명해 주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月印千江之曲」 上卷이다. 이 책은 活字本인데 [24]의 예들을 보면 終聲의 ‘△ㅈㅅ’과 ‘ㅌ’은 ‘ㅅ’과 ‘ㄷ’에 획을 더하였고 ‘ㅍ, ㅌ’은 그 글자를 지우고 고친 흔적이 뚜렷한 것이다.⁽⁷⁾ 필시 ‘ㅂ, ㅌ’으로 되었던 것을 ‘ㅍ, ㅌ’으로 校正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校正은 언제, 누가 한 것일까. 이 책이 간행된 직후에 世宗이 보고 이런 校正을 命한 것으로 筆者는 믿는다. 世宗은 이 책을 본래의 原稿대로 찍지 않고 그 맞춤법을 「解例」의 規定을 따라 고쳐서 찍은 것을 발견하고 몹시 진노하여 당장 고치라는 兪명을 내린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믿는 理由는 「월인석보」(世祖 5年, 1459)에 포함된 「月印千江之曲」이 이 校正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世祖는 「월인석보」를 편찬하면서 자기가 지은 「석

(6) 「月印釋譜」(卷1)의 御製月印釋譜序 참고.

(7) 이 校正에 대해서는 南廣祐 1961 및 安秉禧 1991 참고.

보상절」 부분에도 손을 대었지만 世宗이 지은 「月印千江之曲」 부분은 그 原形을 존중하였는데⁽⁸⁾ [24]의 校正이 채택되어 있는 것이다. 現傳하는 「월인석보」 卷1, 2, 7에 포함된 「月印千江之曲」 부분을 살펴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줄 數字는 章次)

	(單行本)	(月印釋譜本)
7	꽃	꽃(1. 4r)
16	낮	낮(2. 24v)
26	ᄃ	ᄃ(2. 45r)
178	맞나-	맞나-(7. 5v)
179	웅비	웅비(7. 5v)
188	층	층(7. 22v)

그런데 「月印釋譜」本 「月印千江之曲」과 單行本 「月印千江之曲」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들이 存在한다.

첫째, 제14장에 상당한 變改가 보인다. (앞것이 單行本, 뒷것이 月印釋譜本)

白象을 특시니→白象특시고
 햇光明을 빼시니이다→햇光明을 특시니이다
 조썩병니→조썩고

둘째, 章次에 차이가 나타난다. 單行本の 176章이 「月印釋譜」本에는 177장으로, 178장이 179장으로, 194장이 195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月印千江之曲」 校正時에 1章이 추가된 결과임에 틀림없다. 「月印釋譜」 卷3, 4, 5, 6이 現傳하지 않으므로 어디에 1章이 추가되었는지 밝힐 수 없음이 유감이다.

셋째, 單行本 176장, 「월인석보」本 177장의 다음 차이가 주의를 끈다.

웃보니→웃보니

위에 든 세 차이는 現存本 「月印千江之曲」 上卷이 완전한 校正本이 아님을 推定케 한다. 특히 셋째 예는 現存本을 校正한 사람이 不注意로 빠뜨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世宗이 위의 세 예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校正과 改稿를 한 책이 따로 있어서 이것이 「월인석보」의 편찬에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8) 「月印千江之曲」에서는 字音を 大字로 漢字를 小字로 적었던 것을 漢字를 大字로, 字音を 小字로 순서를 바꾼 것이 가장 큰 變改였다.

지금까지의 論述로 世宗은 당시로서는 매우 특이한 맞춤법의 理論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직접 관여한 「용비어천가」와 「月印千江之曲」에서는 이 理論을 實踐에 옮겼음이 분명해진 것으로 믿는다. 「訓民正音 解例」에서 [21]과 [22]를 제시한 것은 이런 世宗의 주장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아마도 世宗은 「解例」의 편찬에 관여한 신하들의 주장([22]가 어리석은 태성들에게는 편한 방법이라는 주장)에 자기의 고집을 거두었으나 자기 理論의 正當性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世宗의 맞춤법 理論은 근본적으로는 현대 한글 맞춤법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낯익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國語의 形態音素論을 연구한 학자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高度로 理論的인 맞춤법이다. 실상 현대 한글 맞춤법은 19세기와 20세기의 交替期에 周時經이라는 한 젊은 학자의 연구에서 싹튼 것인데, 그는 맞춤법은 “本音”을 적어야 하며 “깊다”라고 ‘ㄱ’을 적는 것은 이것이 “本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周時經 1906). 이 本音의 理論은 우리 나라 言語學者가 세운 가장 중요한 理論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⁹⁾ 짐작컨대, 世宗도 자기의 理論을 이와 비슷하게 설명했을 것이다.

끝으로 「月印千江之曲」의 맞춤법이 보여주는 또하나의 特徵을 들기로 한다. 이 책은 ‘ㄴㄹㅁㅂ’으로 끝난 名詞의 경우와 ‘ㄴㅁ’으로 끝난 動詞語幹의 경우에 이들과 助詞 또는 語尾를 分離하여 表記하고 있는 것이다.⁽¹⁰⁾ (數字는 章次)

[25] 눈에(2), 손으로(66)

일울(9), 돌이(17, 31), 기별을(23), 비늘을(28), 말울(29, 32), 드틀에(107), 드틀을(125), 물이(178), 현날인들(74)

꿈을(8), 늪이(11), 늪을(11), 몸이(29), 보름애(31), 막숨울(108), 막숨애(109), 섬이(127), 일흠이(136), 몸이(175), 몸애(175)

증을(188)

안아(57)

담아(4), 남아(54), 감아놀(76)

音節合字法을 이용한 이런 文法 單位의 구별 표기는 15세기와 그뒤의 문

(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李基文 1981 참고.

(10) 이에 대한 첫 논의는 허용 1953 참고.

현들에 散發적으로 보이지만,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이전에 있어서의 體系的인 試圖로는 「月印千江之曲」이 처음이요 또 唯一하였다. 다만 그 당시의 術語로 “不清不濁音”으로 끝난 名詞나 動詞 語幹에 대해서만 이런 試圖를 한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지금까지의 論述을 통하여 우리는 世宗이 音韻論에서 文法에 이르는 넓고 깊은 研究를 하였고 그 결과를 制字와 맞춤법에 반영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學問이 지극히 理論的인 性向을 띠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訓民正音を 創制할 능력이 있는 學者는 世宗밖에 달리 없었다는 結論에 도달한다.

4.

위의 論述에 드러나는 또하나의 사실은 世宗의 대단한 高집과 決行力이다. 그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 그는 理論과 實踐을 아울러 갖춘 사람이었다는 강한 印象을 받는다. 이것이 訓民正音 創制의 大事業을 成功으로 이끈 原動力이었다고 筆者는 믿는다.

우리 나라의 그 당시의 정치적, 문화적 상황으로 볼 때, 訓民正音 創制는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 나라의 支配 階層은 오랫동안 文字(漢字, 漢文)의 特權을 누려왔다. 그리하여 文字生活만은 中國과 다름이 없다는 은근한 自負心이 싹터 있기도 하였다. 漢字와 다른 文字의 創制는 곧 정치적으로는 特權의 喪失을 의미하였고 문화적으로는 中國으로부터의 逸脫을 의미하였다. 崔萬理 一派의 上疏가 바로 이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음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26] 예로부터 九州 안에 風土는 비록 다르나 方言으로 因하여 따로이 文字를 만든 일은 없었고 오직 蒙古 西夏 女眞 日本 西蕃의 類가 자기 그 文字를 가지고 있으나 그 모두 夷狄의 일이라足以 말할 것이 못됩니다. 傳에 가로되 오랑캐를 中夏로 變한다고는 했지만 오랑캐로 變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歷代로 中國에서 우리 나라를 箕子의 遺風이 있다고 하였고 禮樂文物이 中華에 견줄 만하거늘, 이제 따로 諺文을 만들어 中國을 버리고 스스로 夷狄에 同化된다면 이는 이른바 蘇合의 香을 버리고 螳螂의 丸을 取하는 것이라 어찌 文明의 큰 累가 아니리까. (自古九州之內 風土雖異 未有因方言而

別爲文字者 惟蒙古西夏女眞日本西蕃之類 各有文字 足皆夷狄事耳 無足道者 傳曰 用夏變夷 未聞變於夷者也 歷代中國 皆以我國有箕子遺風 文物禮樂 比擬中華 今別作諺文 捨中國而自同於夷狄 是所謂棄蘇合之香 而取螻螂之丸也 豈非文明之大累哉)

[27] 만약에 諺文이 通用되면 吏員될 者が 오로지 諺字만을 익히고 學問을 돌아 보지 않아 文字(漢字)와 吏員이 갈려서 들이 될 것이요 진실로 吏員된 者が 諺文으로써 宦達한다면 後進이 모두 그렇게 되어 27字의 諺文으로써 足히 세상에 立身하게 될 것이니 苦心勞思하여 性理의 學問을 공부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이러한즉 數十年 뒤에는 文字를 아는 者が 반드시 줄어들 것이니 비록 諺文으로써 吏事에 쓰더라도 聖賢의 文字를 알지 못하면 不學牆面과 같아서 事理의 옳고 그름에 어두워질 것입니다. 한갓 諺文에만 힘을 쓴다면 장차 무엇에 쓰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右文의 風化가 漸次로 땅을 쓴 듯하기에 이르리다. (若行諺文 則爲吏者 專習諺文 不顧學問 文字吏員岐而爲二 苟爲吏者以諺文而宦達 則後進皆其如此也 以爲二十七字諺文 足以立身於世 何須苦心勞思 窮性理之學哉 如此則數十年之後 知文字者必少 雖能以諺文而施於吏事 不知聖賢之文字 則不學牆面 昧於事理之是非 徒工於諺文 將何用哉 我國積累右文之化 漸至掃地矣)

이 [26]과 [27]은 崔萬理 一派를 포함한 당시의 支配 階層에게 訓民正音 創制가 이만저만 큰 충격이 아니었음을 잘 표현한 것이다. 既成 秩序의 무너짐, 價値 體系의 뒤집힘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世宗이 이것을 느끼지 못했을 리가 없다. 世宗은 바로 이 支配 階層의 代表者였다. 正音을 創制하면서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바로 崔萬理 등이 두려워한 것을 바랐던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는 世宗의 正音 創制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가 없다고 筆者는 생각한다. 世宗의 學問은, 上述한 바와 같이 經學과 史學을 씨와 날로 한 것이었는데, 이들을 통하여 그는 진정한 統治理念을 追求한 것으로 보인다. 正音 創制도 이러한 統治理念의 한 具現이었던 것이다.

그가 音素文字를 만들려는 發想을 할 수 있는 것은 [26]에 보이는 蒙古, 西蕃 文字, 그리고 梵字 등에 대한 지식에서 온 것이었다. 이 文字들은 완전한 音素文字와는 距離가 있는 것들이었는데, 世宗은 이들을 보고 완전한 音素文字를 構想하게 된 것이다. [26]의 表現을 빌면 “스스로 夷狄에 同化되는” 일을 世宗은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崔萬理 一派의 上疏에 대해서 世宗이 詰責을 했음은 저 위에서 보았는데 ([12], [13], [14], [15]) 그 속에는 上疏의 첫머리에 보이는 [26]과 [27]에 관련된 말은 보이지 않는다. 世宗은 故意的으로 피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世宗 28年(1446)의 「訓民正音」의 御製序는 간접적으로 [26]과 [27]을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角度에서 이 御製文을 읽으면 그 깊은 뜻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다.

[28] 우리나라 말소리가 中國과 달라 文字(漢字)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者가 많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나날이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 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

이것은 새 文字의 頒布文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 民族의 言語에 대한 獨自的 認識과 백성들에게도 文字를 주어야 한다는 世宗의 강한 信念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世宗은 正音으로 漢字를 완전히 대신하려는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諺解를 하고 漢字音을 적기 위하여 正音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 「용비어천가」에서 國文 歌詞를 위주로 삼은 것만 보아도, 「月印干江之曲」에서 漢字語의 表記를 正音을 위주로 한 것만 보아도 世宗의 생각이 어떠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을 통하여 世宗은 사실상 國文學의 새로운 길을 스스로 열어 보인 것이다.

世宗은 적어도 正音으로 吏讀를 대신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世宗 25年末에 正音을 처음 公表했을 때의 글⁽¹¹⁾에 吏讀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崔萬理 등의 上疏에 吏讀와 正音을 비교한 말이 보이며 鄭麟趾의 「訓民正音」 序文에도 이 말이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위에 말한 글에 의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正音으로 吏讀를 대신한다는 것은 國家의 庶務를 비롯한 國民들의 日常 文字生活을 正音으로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7]은 崔萬理 등이 이러한 世宗의 意圖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11) 이 글의 存在 蓋然性에 대해서는 李基文 1974 참고.

5.

世宗實錄에 보면 世宗은 持病(糖尿病, 風症, 眼疾 등)으로 건강이 매우 나빠서 여러번 轉地療養을 하였다(李崇寧 1981). 正音 創制의 公表를 前後해서도 世宗 25년(1443) 3월에 溫陽溫泉으로 갔었고 이듬해(1444)에는 두 차례나(3月~5月, 7月~9月) 淸州 椒水里 冷泉으로 갔다. 26年 2月の 崔萬理 등의 上疏는 3月の 淸州 行次에 다음과 같이 言及하였다.

[29] 또 이번 淸州 椒水 行幸에서는 특히 凶년을 열려하시어 扈從 諸事도 간략하게 힘쓰시매 前日에 比하여 10의 8·9가 준 터이며 또 啓達의 公務까지도 政府에 맡기셨거늘 저 諺文은 國家의 非常한 일로 꼭 期限에 댈 것도 아니온대 어찌하여 유독 行在에서까지 이 일에 汲汲하시어 聖躬의 調攝하실 때를 번거로이 하시렵니까. 臣等은 더욱이 그 可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且今 淸州椒水之幸 特慮年歎 扈從諸事 務從簡約 比之前日 十減八九 至於啓達公務 亦委政府 若夫諺文 非國家緩急 不得已及期之事 何獨於行在 而汲汲爲之 以煩 聖躬調變之時乎 臣等 尤未見其可也)

正音を 완성하여 公表한 뒤에도 이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던 世宗의 모습이 [29]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극도로 건강이 악화된 중에도 正音 研究를 한시도 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는 世宗이 正音を 손수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유력한 증거라 하겠다.

淸州로 行次할 때 大駕에는 正音 創制와 그 後續 事業에 관하여 世宗이 적바림한 종이들이 그득히 실려 있었을 것이다. 이 論文을 쓰면서 오늘날까지 남은 그루터기들을 들추는 동안에 筆者는 가끔 그 때의 적발들을 볼 수 있다면 하는 꿈을 꾸어 보기도 하였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참 고 문 헌

- 姜信沆, 1963. 訓民正音解例 理論과 性理大全과의 聯關性. 국어국문학 26.
 金敏洙, 1964. 新國語學史.
 南廣祐, 1961. 解題(月印千江之曲 影印本).
 沈在箕, 1985. 한국 사람의 말과 글.
 安秉禧, 1991. 月印千江之曲의 校正에 대하여, 李承旭先生 回甲紀念 論叢.

- 李基文, 1972. 國語音韻史研究.
 1974. 訓民正音 創制와 관련된 몇 問題, 國語學 2.
 1981. 한한샘의 言語 및 文字理論, 語學研究 17. 2.
- 李崇寧, 1981. 世宗의 學問과 思想.
- 周時經, 1906. 대한국어문법.
- 허용, 1953. 李朝 初期 文獻의 表記法에 나타난 文法意識, 국어국문학 3.
 1974. 한글과 민족 문화.
- 河野六郎, 1989. 한글과 그 起源(日文). 日本學士院紀要 43. 3.
- DeFrancis, John 1989. Visible Speech: The Diverse Oneness of Writing Systems. Honolulu.
- Bolinger, Dwight 1968. Aspects of Language. New York.
- Burling, Robbins 1992. Patterns of Language. San Diego.
- Fromkin, Victoria and Robert Rodman 1983. An Introduction to Language. Third Edition. New York.
- Ledyard, Gari K. 1966.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issertation.
- McCawley, James D. 1966. Review of Yamagiwa 1964. Language 42.
- Vos, Frits. 1964. Korean Writing: Idu and Hangül. Yamagiwa 1964.
- Yamagiwa, Joseph K. ed. 1964. Papers of the CIC Far Eastern Language Institut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